

목 차

I. 이슈분석 / 1

– 2013년 농식품 수출동향과 2014년 전망 –

1. 2013년 농식품 수출동향 및 평가 / 4

2. 2014년 농식품 수출환경 전망 / 12

3. 2014년 농식품 수출 전망 / 19

II. 대내외 수출환경 동향 / 23

– 국제금융시장 / 25

1. 국제 외환시장 / 25

2. 국제 상품시장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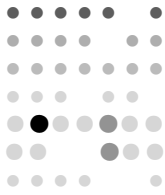
– 주요국의 최근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사항 –

⑥ EU / 28



I. 이슈분석

- 2013년 농식품 수출동향과 2014년 전망 -



2013년 농식품 수출동향과 2014년 전망

* 작성자 : 이병훈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EU 경기회복지연과 주요 수출국 일본의 엔저 영향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었으나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지역과 ASEAN 지역의 한국산 농산물 선호 증가로 전체 농식품 수출은 소폭 증가하였다. 따라서 2013년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57.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상반기 신선농식품과 가공식품 수출은 세계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각각 8.6%,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는 신선농식품이 상반기의 수출 호조세를 이어간 반면 가공식품은 껌 및 막걸리를 비롯한 대형 수출품목의 부진으로 전년대비 수출이 감소하였다.

201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6%로 작년(2.5%)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수출증가가 예상되나, 신흥국의 수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최근 타결된 한·호주 FTA까지 49개국 11건의 FTA 체결 중이고 협상중인 한·중 FTA를 포함할 경우 FTA 수출액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5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FTA를 활용한 역내수출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도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도는 24.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 중에 있다.

2014년 한국산 농식품의 주요수출국인 미국, 유럽 등의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고 주요 수출여건이 개선되어 2014년 농식품 수출은 사상 최초로 6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환경 호조 시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농식품 수출 목표치 68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1. 2013년 농식품 수출동향 및 평가

1) 총 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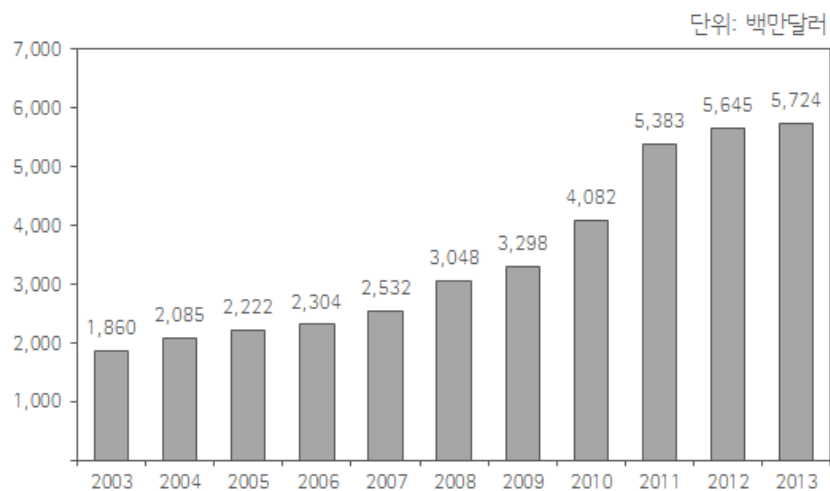
◆ 2013년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57.2억 달러 기록

- 상반기 농식품 수출은 27.8억 달러로 전년대비 2.6%, 하반기는 29.4억 달러로 전년대비 0.3% 증가

◆ EU 경기회복지연과 주요 수출국 일본의 엔저 영향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었으나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지역과 ASEAN 지역의 한국산 농산물 선호 증가로 전체 농식품 수출은 소폭 증가

-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원-엔화 환율이 급락하여 일본으로 전량 또는 대부분을 수출하는 화훼 및 멜론을 비롯한 대일 수출의준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액이 급감
- 반면, 중국 등 중화권지역과 ASEAN 지역 내에 국산 농식품의 해외 판촉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산 농식품의 수요 증가로 이 지역으로 수출이 급증

■ 연도별 농식품 수출 동향 ■



2) 부류별 수출동향

◆ 전년대비 신선농식품은 9.4% 증가한 반면, 가공식품은 0.5% 감소

- 상반기 신선농식품과 가공식품 수출은 세계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각각 8.6%,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하반기는 신선농식품이 상반기의 수출 호조세를 이어간 반면 가공식품은 껌 및 막걸리를 비롯한 대형 수출품목의 부진으로 전년대비 수출이 감소하였음.

■ 2013년 농식품 부류별 수출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2			2013		
	1월~6월	7~12월	1~12월	1월~6월	7~12월	1~12월
합 계	2,710 (5.8)	2,935 (4.0)	5,645 (4.9)	2,782 (2.6)	2,943 (0.3)	5,724 (1.4)
신선농식품	519 (17.0)	561 (△2.0)	1,079 (6.3)	563 (8.6)	617 (10.2)	1,181 (9.4)
가공식품	2,191 (3.5)	2,375 (5.5)	4,565 (4.5)	2,218 (1.2)	2,326 (△2.1)	4,544 (△0.5)

주: 괄호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 [신선농식품] 딸기(22.6%), 새송이(13.6%), 인삼(16.1%), 팥이(16.0%), 토마토(10.1%), 유자차(5.4%) 등은 증가한 반면, 김치(△16.2%), 파프리카(△2.0%), 멜론(△16.3%), 백합(△33.9%) 등은 부진

- (딸기) 말레이시아, 태국 등을 비롯한 ASEAN 지역의 판촉행사 등 마케팅노력과 주 수출국인 싱가포르·홍콩에서의 수요증가 및 항공 수출이 뒷받침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지속
- (새송이 버섯) 항공수출물량증가와 캐나다, 미국, 일본 지역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끌며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음.
- (인삼류) 상반기 수출은 최대수출국인 중국·일본의 수요 감소로 전년보다 부진했으나 하반기에는 중화권 지역의 지속적인 판촉노력으로 수출이 급증하여 전체 수출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김치) 주 수출시장인 일본의 엔저현상으로 수출이 둔화된 가운데 일본현지 시장에서 값싼 중국산 김치와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수출액이 급감하였음.
- (파프리카) 상반기 지속된 저온현상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가운데 전체 수출 물량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으로의 수출 물량은 지난해 보다 6.3% 증가했지만 엔저현상으로 수출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 (유자차) 주요시장인 중국에서 고급화와 우수한 상품성을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전년대비 수출이 증가하였음.

■ 2013년 주요 신선농산물 수출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2			2013		
	1월~6월	7~12월	1~12월	1월~6월	7~12월	1~12월
김 치	53.6 (7.2)	53.0 (△2.9)	106.6 (1.9)	46.1 (△14.0)	43.2 (△18.5)	89.3 (△16.2)
인삼류	89.9 (△10.7)	60.9 (△31.3)	150.8 (△20.3)	75.2 (△16.4)	99.9 (64.0)	175.1 (16.1)
파프리카	51.2 (49.3)	37.6 (19.0)	88.8 (34.7)	49.8 (△2.7)	37.2 (△1.1)	87.0 (△2.0)
딸 기	16.8 (52.7)	7.5 (△21.9)	24.3 (18.0)	22.3 (32.7)	7.5 (0.0)	29.8 (22.6)
멜 론	2.1 (31.3)	2.8 (△3.4)	4.9 (8.9)	1.7 (△19.0)	2.4 (△14.3)	4.1 (△16.3)
토마토	5.7 (62.9)	7.2 (16.1)	12.9 (33.0)	6.6 (15.8)	7.6 (5.6)	14.2 (10.1)
유자차	18.3 (2.2)	22.5 (0.0)	40.8 (1.0)	19.1 (4.4)	23.9 (6.2)	43.0 (5.4)
백 합	5.6 (5.7)	24.5 (△11.9)	30.1 (△9.1)	4.4 (△21.4)	15.5 (△36.7)	19.9 (△33.9)
팽 이	7.3 (19.7)	9.6 (△41.8)	16.9 (△25.2)	9.0 (23.3)	10.6 (10.4)	19.6 (16.0)
새송이	5.5 (25.0)	7.0 (1.4)	12.5 (10.6)	6.4 (16.4)	7.8 (11.4)	14.2 (13.6)

주: 괄호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 [가공농식품] 조제분유(22.4%), 비스킷(21.7%), 음료(7.8%), 라면(3.1%), 커피조제품(3.0%), 고추장(2.5%) 등은 증가한 반면, 막걸리(△48.8%), 껌(△13.4%), 제3맥주(△3.1%), 마요네즈(△3.2%) 등은 부진

- (조제분유) 주요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캄보디아 등의 신규 시장 내의 마케팅 활동으로 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전체 수출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였음.
- (비스킷) 중국내 수입과자 및 베이커리 시장이 성장하였고 맛과 디자인을 내세운 한국산 베이커리 업체의 품질강화를 통한 고급화 전략과 판촉활동으로 점진적으로 한국산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여 수출호황 상태가 지속되었음.
- (라면) 상반기 중국시장에서의 호조와 케냐, 가나 등 아프리카 지역의 신 시장 개척으로 전년도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었지만 하반기에는 일본의 엔저에 따른 수익성 감소 및 러시아의 현지 생산제품의 몰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수출이 감소하였음.
- (막걸리) 국내시장에서 저렴해진 수입 맥주와 와인의 소비가 늘면서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어 생산량이 줄었고 주요 수출국인 일본에서 반한류의 영향으로 막걸리 소비가 크게 줄어 수출이 악화되었음.
- (껌) 지난해 수출 호조세를 보였으나, 대이란 제재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으로 중동 바이어 활동이 미진함에 따라 주력 수출국인 중동 국가로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전체 수출이 악화되었음.
- (제3맥주) 상반기 일본산 제3맥주의 신제품 출시 및 무알콜 맥주맛 음료 등과의 경쟁심화로 수출이 부진하여 하반기 일본 시장의 판촉활동 집중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2013년 주요 가공식품 수출실적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2			2013		
	1월~6월	7~12월	1~12월	1월~6월	7~12월	1~12월
컬 런	261.8 (4.3)	344.6 (15.3)	606.4 (10.3)	221.5 (△15.4)	303.5 (△11.9)	525.0 (△13.4)
제3맥주	70.7 (△7.6)	73.6 (19.9)	144.3 (4.6)	66.6 (△5.8)	73.2 (△0.5)	139.8 (△3.1)
커피조제품	141.5 (6.2)	155.7 (△7.9)	297.2 (△1.7)	145.8 (3.0)	160.3 (3.0)	306.1 (3.0)
라 면	104.2 (12.2)	102.0 (8.7)	206.2 (10.4)	112.1 (7.6)	100.4 (△1.6)	212.5 (3.1)
음 료	112.4 (21.8)	113.5 (23.6)	225.9 (22.7)	131.0 (16.5)	112.5 (△0.9)	243.5 (7.8)
비스킷	50.2 (12.8)	58.7 (9.9)	108.9 (11.2)	62.8 (25.1)	69.7 (18.7)	132.5 (21.7)
마요네즈	16.2 (5.2)	21.6 (△0.9)	37.8 (1.6)	17.4 (7.4)	19.2 (△11.1)	36.6 (△3.2)
고추장	11.4 (4.6)	12.3 (12.8)	23.7 (8.7)	11.3 (△0.9)	13.0 (5.7)	24.3 (2.5)
막걸리	24.9 (△17.8)	12.0 (△46.4)	36.9 (△30.0)	10.4 (△58.2)	8.5 (△29.2)	18.9 (△48.8)
조제분유	26.0 (45.3)	31.1 (69.9)	57.1 (57.7)	36.7 (41.2)	33.2 (6.8)	69.9 (22.4)

주: 괄호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3) 국가별 수출동향

◆ 중국(4.6%)을 비롯한 홍콩(28.8%), 대만(4.1%) 등의 중화권 국가와 ASEAN(19.0%), 미국(10.5%)에서 농식품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8.6%)과 EU(△4.6%)에서는 부진

- (중국) 2013년부터 시행되는 수입식품 검역·통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세계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었으나 지속적인 한국산 제품의 판촉활동으로 한국산 농식품의 수요가 증가하여 수출호황세가 지속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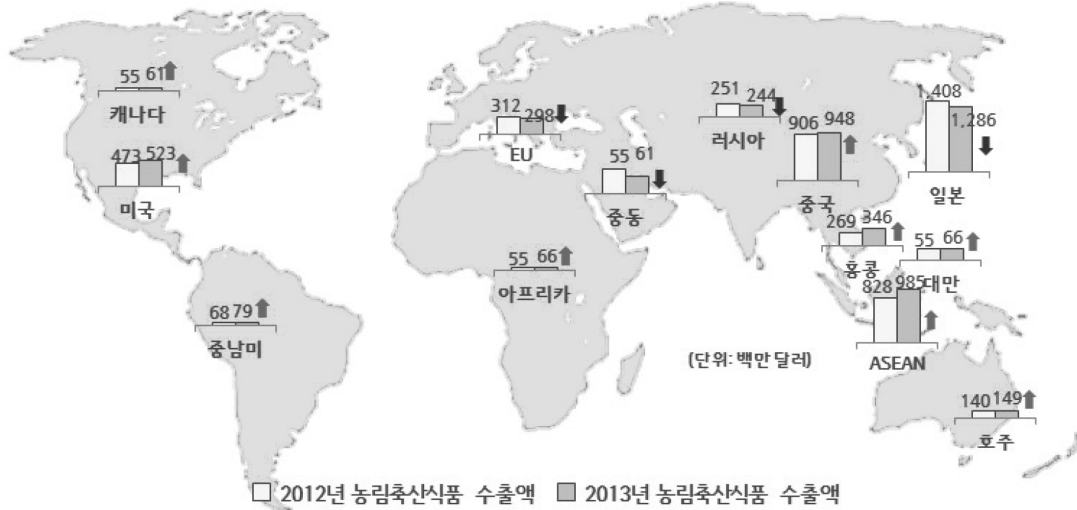
- (홍콩) 최근 홍콩경기 호황과 홍콩 내 한국산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일본 및 중국산 농식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여 수출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ASEAN) 베트남, 태국 등 국가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외식 수요증가와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집중적인 판촉활동 등의 마케팅 노력으로 중국을 제치고 제2의 수출시장으로 성장하였음.
- (미국) 한·미 FTA 관세혜택 품목인 커피조제품, 음료, 라면 등의 수출품목을 위주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일본) 아베노믹스 금융완화 정책에 따른 엔저로 인하여 우리 수출품목의 채산성이 악화되었고 독도문제 등으로 반한감정이 고조됨에 따라 전년대비 농식품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음.
- (EU) 한·EU FTA에도 불구하고 EU 가맹국의 정치불안, 재정위기, 높은 실업률 등 최근 경기불황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감소세가 지속되었음.

■ 2013년 주요 국가별 농식품 수출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2			2013			증감율		
	1월~6월	7~12월	1~12월	1월~6월	7~12월	1~12월	1월~6월	7~12월	1~12월
일 본	680.7	726.9	1,407.6	619.3	667.0	1,286.3	△9.0	△8.2	△8.6
ASEAN	411.2	416.9	828.1	489.7	495.7	985.4	19.1	18.9	19.0
중 국	426.3	480.1	906.4	466.8	481.0	947.8	9.5	0.2	4.6
미 국	221	252.1	473.1	253.2	269.5	522.7	14.6	6.9	10.5
홍 콩	133.3	135.5	268.8	169.5	176.6	346.1	27.2	30.3	28.8
E U	161.1	150.9	312.0	154.1	143.6	297.7	△4.3	△4.8	△4.6
러시아	121.3	130.1	251.4	118.0	126.4	244.4	△2.7	△2.8	△2.8
대 만	106.8	118.5	225.3	106.4	128.2	234.6	△0.4	8.2	4.1
기 타	448.1	524.0	972.1	404.5	454.9	859.4	△9.7	△13.2	△11.6

2012-2013년 주요 수출 국가별 수출실적



4) 2013년 농식품 수출 평가

엔저 등 어려운 수출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은 1.4% 증가로 성장세 유지

- 대 일본 수출은 2012년 기준 전체 농식품 수출의 24.9% 차지하는 만큼 아베정권의 엔저기조는 전체 농식품 수출에 큰 타격을 주었음.
 - 특히, 김치, 멜론, 화훼류, 막걸리 등 대 일본 무역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전년 대비 수출실적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농식품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와 해외 신 시장에 대한 판촉활동 등 마케팅 노력 등으로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1.4% 증가하여 성장세를 이어갔음.

주요 수출지역으로 ASEAN 지역의 급부상

- 2013년 농식품 수출액 비중에서 ASEAN 지역이 중국을 제치고 일본에 이어 제 2위의 수도지역으로 성장
- 특히, ASEAN 지역은 경제개발지역으로써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고 한류의 영향권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산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인식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농식품 수출에서 신선농식품의 비중 증가

- 가공식품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신선농식품 수출이 약진하여 전체 농식품 수출을 견인하였고 특히, 3년 연속 10억 달러를 달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하였음.
 - 신선농식품 수출 비중은 2012년 19.1%에서 2013년 20.6%로 소폭 상승하였음.
 - 그러나 여전히 농식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신선농식품 수출 비중이 작아 농가경영 안정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요구됨.

◆ 주요수출지역에서 한국산 농식품의 이미지 제고 노력

- 중국, 미국, ASEAN을 비롯한 주요수출지역에서의 ‘K-FOOD Fair’ 가 성황리에 개최됨에 따라 우리 농식품에 대한 우수하고 안전한 이미지를 바이어와 수출지역 소비자에게 더욱 인식시키고 주변으로 구전되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였음.
- 전통적인 주요수출지역인 중국에서는 최근 연평균 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중산층의 소비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을 겨냥한 고급화 및 차별화된 다양한 마케팅 판촉활동이 진행되었음.

◆ 유제품의 주요수출품목으로 입지 강화

- 가공식품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유(133%), 조제분유(23%) 등의 유제품 수출이 20%이상 증가세를 보이며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특히, 한국산 조제분유에 대한 신뢰와 자녀에 대한 과감한 지출 성향이 있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안전성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음.

2. 2014년 농식품 수출환경 전망

1) 세계경제

◆ 201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6%로 작년(2.5%)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약세로 하방위험이 존재하나, 최근 경제지표들은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선진국 경제를 원동력으로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IMF, OECD의 전망에 의하면 2014년 3.6%, 2015년 3.9%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
- 선진국의 경우 2013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견고한 성장세 유지와 유럽 경기 둔화폭 감소로 2014년 성장률을 2.0%, 2.7%로 예측하고 있음.
 - 신흥개도국은 선진국 시장 수출 개선으로 견고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 세계 경제 전망 ■

(단위 : %)

구 분	IMF 전망치		OECD 전망치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세 계	2.9	3.6	2.7	3.6	3.9
선진국	1.2	2.0	1.2	2.3	2.7
미국	1.6	2.6	1.7	2.9	3.4
유로존	△0.4	1.0	△0.4	1.0	1.6
일본	2.0	1.2	1.8	1.5	1.0
영국	1.4	1.9	1.4	2.4	2.5
신흥개도국	4.5	5.1	-	-	-
중국	7.6	7.3	7.7	8.2	7.5
인도	3.8	5.1	3.0	4.7	5.7
아세안	5.0	5.4	-	-	-
세계교역증가율	2.9	4.9	3.0	4.8	5.9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3.,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13.

◆ 2014년 세계교역량은 경기회복에 힘입어 5~6% 대의 증가세 전망

- 전반적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교역도 2014년 5%대, 2015년 6%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은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1%대에 머물렀던 선진국의 수입물량은 2014년 4%가량으로 증가하고 개도국의 수입물량은 5% 후반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2) 주요 지역별 경제

◆ [미국] 소비 등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 2014년 3%대 경제성장 예상

-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은 회복속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2014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3%대로 2013년보다 더욱 높아질 전망

◆ [일본] 재정부담 증가와 예정된 소비세 인상으로 작년보다 둔화된 1.5% 성장 전망

- 2014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 국가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아베노믹스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2014년 성장률은 1.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신지도부의 경제구조 개혁과 금융불안 지속으로 성장률은 7% 중반 대 유지 전망

- 경기부양보다 경제개혁을 추구하는 가운데 2014년 본격적인 구조개혁으로 성장률이 7% 중반에 그칠 예상
- 뿐만 아니라 중국은 금융리스크가 성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개혁과 성장사이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전망

◆ [유로존] 재정리스크가 다소 완화되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예상

- 수출 및 투자 개선으로 2014년에는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나 여전히 재정긴축, 고실업률, 금융부실 증가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상존하여 회복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 인도경제는 작년보다 호전 예상, 아세안은 5.4% 대 견고한 성장세 이어질 전망

- 인도는 작년 대내외 여건 악화로 경기 둔화를 겪으나 2014년에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세안은 필리핀,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내수 확대에 힘입어 내년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질 전망

3) 국내경제

◆ 2014년도 수출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 상승 국면 예상

-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2013년 2.6%에서 2014년에는 3.9%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는 점차 회복되겠으나 2014년 상반기까지는 매분기 경제성장률(전기대비)이 장기추세수준을 밑돌아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대외 불확실성 완화,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성장률이 상승할 전망
 - 민간소비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완화되어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 설비투자는 투자심리가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가운데 대외수요 확대에 투자유인이 개선되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수출증가, 신흥국 수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전망

- 전체 수출은 선진국 경기가 개선되면서 2013년 하반기부터의 회복 국면이 이어져 2014년에는 수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이는 신흥국의 수출증가폭은 금융위기 이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미국, 유럽의 경기가 2013년 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기인
 - 그러나 환율 여건은 부정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로 원화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빠른 절상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특히 낮은 엔화 가치가 유지되면서 일본기업들과의 경쟁이 점차 치열 예상됨.

4) 환율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어 완만한 강세를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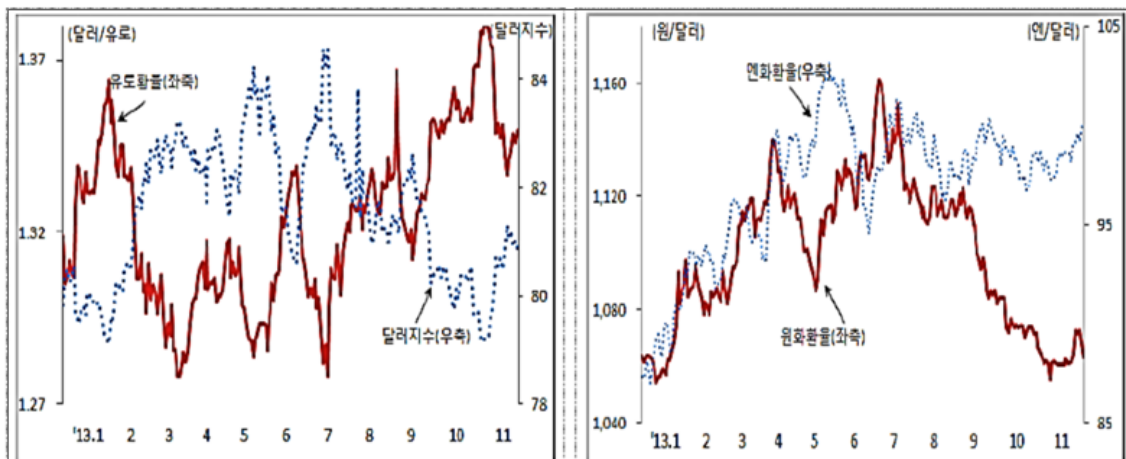
- 경기 개선과 경상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2014년에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연평균 1,070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경기 회복에 따른 달러 강세는 지속될 전망

◆ 엔/달러 환율은 엔저 현상이 지속되어 2014년에는 106엔 수준일 전망

- 일본의 1달러당 엔화는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100엔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06엔 정도로 엔저 현상은 지속될 전망

■ 달러지수, 달러/유로 변동 추이

■ 원/달러, 엔/달러 변동 추이



자료: 국제금융센터.

5) 통상환경

◆ FTA 시대, 최근 타결된 한·호주 FTA까지 49개국 11건의 FTA 체결 중

- 2013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총 49개국과 11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그 중 한·콜롬비아, 한·호주 FTA를 제외한 9건의 FTA가 발효 중
- 협상중인 한·중 FTA를 포함할 경우 FTA 수출액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5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FTA를 활용한 역내수출량은 크게 증가할 전망

■ 우리나라 농산물1) 수출 중 FTA가 차지하는 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2,085	2,222	2,304	2,532	3,048	3,298	4,082	5,384	5,645	5,724
FTAs2)	515	560	600	675	891	976	1,290	1,646	1,842	1,956
	24.7%	25.2%	26.0%	26.6%	29.2%	29.6%	31.6%	30.6%	32.6%	37.0%
칠레	285	280	282	302	335	338	377	419	473	480
싱가포르	19	22	21	25	33	43	82	81	97	101
EFTA	2	2	3	2	3	6	5	5	4	5
ASEAN	117	143	184	214	271	325	522	756	828	952
인도	5	5	6	9	12	14	16	22	22	38
EU	59	64	45	52	145	157	202	261	303	261
페루	1	0	0	0	1	1	1	1	1	2
미국	1	1	1	1	3	3	3	4	5	6
터키	1	3	4	2	16	10	7	15	11	15
콜롬비아	0	0	0	0	0	0	0	1	4	6
호주	25	40	54	68	72	79	75	81	94	90

주 1. 농산물은 수산물을 제외한 것을 의미함(농산물+축산물+임산물).

주 2. FTAs는 연도별로 발효된 FTA를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이며,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발효일에 관계없이 연도를 기준으로 합산하였다. 표에서 음영이 들어간 부분은 해당 FTA가 발효된 기간으로 표의 'FTAs' 항목에서 합산하였음.

주 3. 싱가포르는 ASEAN에 속한 국가로 한·ASEAN FTA가 발효된 2007년 이후로는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싱가포르 FTA는 'FTAs' 항목에 합산하지 않았음.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KATI

● 한·ASEAN, 한·미, 한·EU 등 FTA를 활용한 관세인하 수혜 대상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출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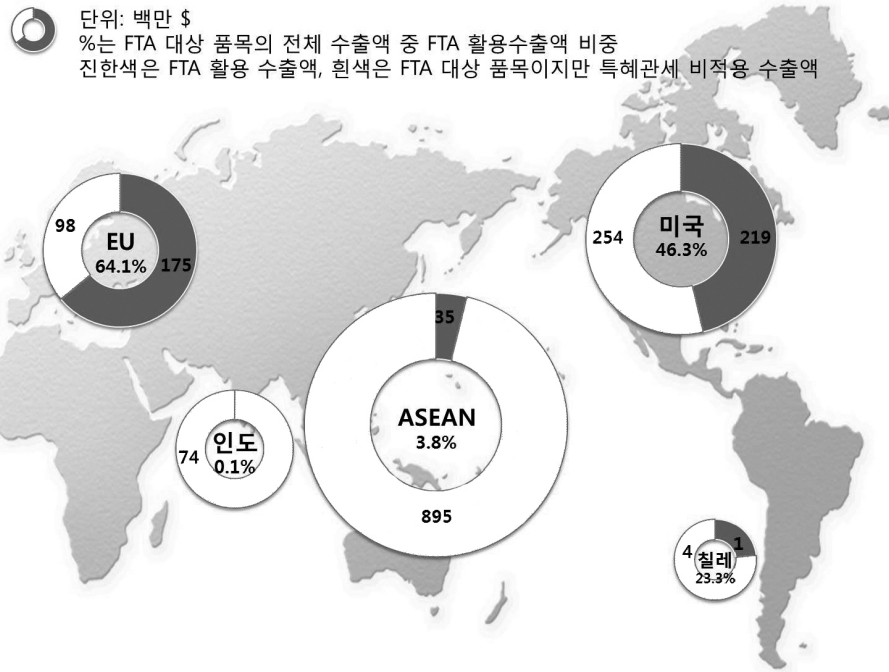
- 한·ASEAN FTA는 발효 이후 매년 두 자리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면서, 2013년에는 약 5억 달러까지 증가하여 FTA 체결국 중 미국을 제치고 가장 큰 시장으로 발전

- 한·미 FTA는 발효 이후 2년간 농식품 수출이 즉시 관세철폐 대상 품목인 음료, 김치, 라면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약 10.0% 증가한 4억8천만 달러까지 확대

FTA 활용률 여전히 낮은 수준임

- 2013년도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도는 24.7%로 매우 낮은 수준임.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FTA 대상품목'의 수출액은 약 18억 달러이며, 이 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FTA 활용 수출액은 약 4억 4천만 달러에 불과
- 국가별로 보면, EU로의 수출활용도는 60% 이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46.3%로 뒤를 잇고 있음. FTA 대상품목의 수출액은 ASEAN이 가장 크지만, 수출활용도는 3.8%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도 역시 농식품 수출 시 FTA 특혜관세 적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임.
- 일반 제조업의 경우 FTA 수출활용도가 70%를 상회하는 반면, 농식품 FTA 수출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수입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원산지 규정이 까다로운 데다 FTA별로 상이하며, 주요 수출시장인 개도국의 원산지 확인, 통관 등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물적·인적 인프라가 낙후되었기 때문

주요 FTA 이행 국가별 농축산물 수출활용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13년 11월 누적 기준).

-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대부분의 품목이 50% 이하의 낮은 FTA 수출활용도를 보이고 있음. 수출액이 가장 큰 김치의 경우 FTA 수출활용도는 31.1%이지만, 미국시장으로의 수출 시 FTA활용도는 53.2%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배, 유자, 밥 등은 35~45% 수준의 수출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나, ASEAN으로 수출 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해 전체 수출활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주요 수출품목의 국가별 FTA 수출활용도(2013년 기준) ■

(단위 : %)

구 분	FTA 전체	미 국	EU	기타 국가
김 치	31.1	53.2	26.8	
홍 삼	2.0	42.9	31.9	0(ASEAN)
배	35.3	38.0	98.1	0.1(ASEAN)
유 자	45.0	63.0	36.6	
빵	18.0	22.7		0(ASEAN)
밥	38.8	39.6		0(ASEAN)
딸 기	0		100	0(ASEAN)
혼합조제식료품	39.1	39.3	76.5	0.7(ASEAN), 0.1(인도)
커피조제품	30.0	70.0		25.4(ASEAN)
라 면	54.8	72.2	91.8	13.2(ASEAN)
기타곡물발효주	61.6	100.0	100.0	0(ASEAN)
소 주	23.8	37.5	30.6	0(ASEAN)

주: FTA 수출활용도는 FTA대상 수출액 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액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1~11월 기준).

3. 2014년 농식품 수출 전망

◆ 2014년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6.7 ~ 18.1% 증가한 61.1 ~ 67.6억 달러 전망

- 한국산 농식품의 주요수출국인 미국, 유럽 등의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고 주요 수출 여건이 개선되어 2014년 농식품 수출은 사상 최초로 6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환경 호조 시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농식품 수출 목표치 68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013년 주요 농식품 수출국에서 진행되었던 관측 등 다양한 마케팅활동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가 가시화되어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국가와 ASEAN 국가에서의 농식품 수출이 최대 호황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 반면에 농식품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일본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엔저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정부의 재정부담 증가와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산 농식품 수출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2014년 농식품 수출 전망 ■

(단위 : 백만달러, 비중(%))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p
농식품 수출액	2,532	3,048	3,298	4,082	5,383	5,646	5,724	6,107~6,758
전년대비 증감율	9.9%	20.4%	8.2%	23.8%	31.9%	4.9%	1.4%	6.7% ~ 18.1%

주 1. 2014년 농식품 수출 전망치 결과는 농식품 수출공급 반응함수 추정에 의한 것임.

주 2. 2014년도 거시경제전망치 전망치: 원달러 환율=1,070원, 엔달러 환율=106엔,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127, 농산물 수출물가지수(2010=100)=170, 농림생산액=47.8조

◆ 국가별 농식품 수출은 일본의 수출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화권 및 ASEAN 국가의 호황기가 지속될 전망

◆ [미국] 대미 농식품 수출은 전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경기회복 및 달러화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식품소비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따라서 전년에 이어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겟 시장별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현지인마켓 입점 확대를 통해 수출활성화 전략이 요구됨.

◆ [일본] 엔저지속, 소비세 부담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전년대비 하락

-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 지속되고 일본의 소비세가 2014년 4월에 5%에서 8%로 인상되어 농식품 수출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업체의 비용절감 및 반한 기류 극복을 위한 판촉에 중점을 두고 공동물류 확대 등을 통한 현지 물류비용 절감 유도 및 신규 유통채널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중국] 한국산 고품질 안전식품 이미지 제고에 힘입어 전년대비 증가

-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둔화 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7% 중반 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중산 소비자계층을 중심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올해도 한국산 농식품 수출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소비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는 내륙시장 공략하기 위해 청두 aT센터 신설, 칭다오 수출전진기지(14.11 건립 예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EU] 유로존 경기회복에 따라 증가세로 전환

- 유로존의 성장률이 2014년 1분기에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최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에서 한류 열풍에 의한 한국산 농식품 수요증가가 기대됨.
- ASDA(영국), METRO(독일), Carrefour(프랑스) 등 현지 대형유통업체와 연계된 판촉활동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ASEAN] 주요 아세안국을 중심으로 한국산 농식품 소비확대 전망

- ASEAN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전망됨에 따라 내수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한국산 농식품 수출은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ASEAN내 주요 농식품 시장은 시장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고 미개척 시장(미얀마, 캄보디아 등)에 대해서는 신규 수요 발굴 전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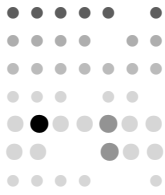
II. 대내외 수출환경 동향

- 국제 금융시장

1. 국제 외환시장
2. 국제 상품시장

- 주요국의 최근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 사항 -

⑥ EU



국제 금융시장

* 작성자 : 양다영, 강은정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1. 국제 외환시장

◆ 미국 FRB의 출구전략 시행으로 유로지역, 일본 등과 통화정책 성향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달러가 강세

-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는 지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에 따라 2014년부터 채권시장에서 매월 매입하고 있던 자산 규모를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축소하는 등 출구전략을 시행
 -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1월 9일 개최된 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하면서 유로지역의 경기부양을 위해 현재의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
 - 일본의 경우에도 쿠로다 일본은행(BOJ) 총재가 1월 1일 인터뷰를 통해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한을 두지 않고 질적·양적 완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지속

◆ 원/달러 환율은 미국 양적완화 규모 축소에 따른 달러 강세와 연초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 유출로 상승하였으나 수출업체 달러 매도 등이 상승폭을 제한

▮ 주요 환율 동향

구분	2014.1.20 (현재)	2013.12.20 (1개월전)	2013.1.20 (1년전)	전월대비 상승률	전년대비 상승률
달러 인덱스 ¹	81.23	80.58	80.04	0.8%	1.5%
달러/유로	1.3552	1.3673	1.3320	-0.9%	1.7%
엔/달러	104.2	104.1	90.1	0.1%	15.6%
위안/달러	6.0527	6.0717	6.2206	-0.3%	-2.7%
원/달러	1,063.7	1,061.2	1,057.2	0.2%	0.6%

주: 1. 유로,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1973년 3월=100)

자료: Bloomberg.



2. 국제 상품시장

◆ 최근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지표 부진, 리비아 생산재개 기대감, 미 양적완화조치 규모 축소 등으로 하락

- 중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국제유가가 하락하였음.
 - 중국의 12월 HSBC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전월(50.8)대비 하락한 50.5를 기록하였음.
- 리비아의 원유수출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리비아의 원유생산량은 2013년 상반기 평균 140~150만 b/d 수준이었으나 계속되는 내전으로 20만b/d 이하까지 감소하였음.
 - 1/4 리비아 최대유전인 El Sharara 유전의 생산이 재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근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60만 b/d 수준까지 증가하였음.
 - 리비아 석유부 장관은 이번 달 말 리비아 동부지역 주요 항구 네 곳에서도 운영이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1/13)
- 미 양적완화축소 가속화 우려로 국제유가는 하락압력을 받았음.
 - 12월 FOMC 회의록이 발표됨에 따라 양적완화조치 규모 축소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었음(1/9).
- 대다수 위원들은 양적완화조치의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에 양적완화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국제유가 동향 ■

(단위: \$/b, %)

구 분	2014.1.20	2013.12.20	전월대비 증감률(%)
WTI유	94.3	99.1	-4.8%
Dubai유	103.3	107.1	-3.5%
Brent유	107.6	112.0	-3.9%

자료: Bloomberg.

◆ 국제곡물가격은 생산량 증가 전망 등으로 하락

● 소맥가격은 생산량 증가 전망 등으로 하락

- 미 농무부(USDA, 1월) 수급보고서에 따르면 2013/14년도 전세계 소맥 소비량은 3.6% 늘어난 7억 340만 톤, 생산량은 전년대비 8.6% 늘어난 7억 1,270만 톤으로 생산량이 소비량을 상회할 전망이다.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캐나다 등의 생산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 옥수수 가격은 생산량 증가 전망, 중국 수요 감소 우려 등으로 하락

- 미 농무부(USDA, 1월) 수급보고서에 따르면 2013/14년도 전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12.0% 증가한 9억 6,690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전망이다
- 소비량은 전년대비 8.9% 늘어난 9억 3,970만 톤으로 생산량이 소비량을 상회
- 중국이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였음.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은 미국산 옥수수가 방충기능을 강화하는 유전자인 'MIR 162'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입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내렸음.

● 대두 가격은 생산량 증가 전망, 아르헨티나 가뭄 해소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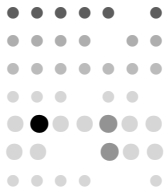
- 미 농무부(USDA, 1월) 수급보고서에 따르면 2013/14년도 전세계 대두 생산량은 전년대비 6.9% 늘어난 2억 8,680만 톤으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였음.
- 소비량은 전년대비 4.9% 늘어난 2억 7,090만 톤으로 생산량이 소비량을 상회
- 아르헨티나에서 폭염으로 인해 대두 작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최근 주요 곡물 재배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대두 가격이 하락하였음.

■ 세계 주요 곡물 가격 동향 ■

(단위: ¢/bu, %)

구 분	2014.1.20	2013.12.20	전월대비 증감률(%)
소 맥	563.4	610.6	-7.7%
옥수수	424.0	433.2	-2.1%
대 두	1,316.5	1,339	-1.7%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주요국의 최근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 사항 - ⑥ EU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최근 검역제도 변경 사항

● 초유 및 초유성분 제품에 대한 규제(2013. 11. 13)¹⁾

- EU는 초유 및 초유성분 제품이 미살균우유와 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초유 및 초유성분 제품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내용의 EU Regulation No 605/2010 개정안을 2013년 11월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음.
- EU Regulation No 605/2010은 미살균우유나 기타 유제품들이 EU로 수입될 때 요구되는 동물 건강조건 증명에 관한 규정이며, 초유 및 초유성분 제품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님.
- 그러나 초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초유 및 초유성분 제품 수입 시 새로운 건강검증 모델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킴.
- 동 개정안에는 미살균우유, 유제품, 초유, 초유성분 제품에 대한 건강 증명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음.

● 식료품에 대한 카드뮴 최대 허용수준 수정안 공표(2013. 9. 16)²⁾

- EU는 식료품에 대한 카드뮴 최대 허용치를 규정한 EC Regulation No 1881/2006의 수정안을 2013년 9월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음.
- 특히 동 수정안에서는 코코아, 초콜릿제품, 유아용식품 등이 가장 높은 카드뮴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가장 쉽게 노출되는 품목이므로 주당 최대 섭취량을 2.5 $\mu\text{g}/\text{kg}$ body weight로 정하고 있음.

1) G/SPS/N/EU/59

2) G/SPS/N/EU/55

▣ 코코아, 초콜릿제품, 유아용식품에 대한 카드뮴 최대 허용치 ▣

품 목	Cadmium
코코아 및 초콜릿 제품	
• 밀크초콜릿<30% total dry cocoa solids	2019년 1월 1일부터 0.1
• 초콜릿<50% total dry cocoa solids; 밀크초콜릿≥30% total dry cocoa solids	2019년 1월 1일부터 0.3
• 초콜릿≥50% total dry cocoa solids	2019년 1월 1일부터 0.8
• 코코아파우더	2019년 1월 1일부터 0.6
유아용식품	
• 소의 밀크단백질로부터 제조된 분유	2015년 1월 1일부터 0.01
• 소의 밀크단백질로부터 제조된 액상우유	2015년 1월 1일부터 0.005
• 콩단백질 분리로 제조된 분유	2015년 1월 1일부터 0.02
• 콩단백질 분리로 제조된 액상우유	2015년 1월 1일부터 0.01
유아 및 어린이용 식품 및 가공 곡물식품	2015년 1월 1일부터 0.04

자료: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3/sps/EEC/13_3645_00_e.pdf

◆ 스모크 향료에 대한 허용치 규제 리스트 WTO에 통보(2013. 7. 10)³⁾

- EU는 치즈, 가공육류, 소스 등에 사용되는 스모크 향료 사용 허용치 규제를 확정한 리스트를 2013년 7월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음.
- 동 리스트에 해당되는 품목들⁴⁾은 EC Regulation No 2065/2003에 의거해 향후 10년간 유효함.

▣ 스모크 향료 사용 최대 허용치 ▣

품목 명	식품 카테고리	Maximum level g/kg
Scansmoke PB 1110	치즈 및 치즈제품	2.0
	가공육류	2.0
	가공어류 및 어류제품	2.0
	소스	1.0
Zesti Smoke Code 10	치즈 및 치즈제품	0.50
	가공과일 및 채소	0.30
	가공육류	2.5

3) G/SPS/N/EU/49

4) 10개의 품목들(Scansmoke PB 1110, Zesti Smoke Code 10, Smoke concentrate 809045, Scansmoke SEF 7525, SmokEz C-10, SmokEz Enviro-23, Tradismoke™ A MAX, proFagus-Smoke R709, Fumokomp, AM 01)이 있으나, 지면관계상 3개의 품목만 명시함.

품목 명	식품 카테고리	Maximum level g/kg
	가공어류 및 어류제품	2.0
	소스	1.0
Smoke concentrate 809045	낙농제품	0.50
	가공과일 및 채소	0.30
	빵	0.60
	육류	0.60
	가공어류 및 어류제품	0.60
	소스	4.0

자료: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3/sps/EEC/13_2659_00_e.pdf

◆ 향미료 사용 금지(2013. 5. 22)⁵⁾

- EU는 2013년 5월 22일 향미료인 3-acetyl-2,5-dimethylthiophene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함.
 - 유럽식품안전청은 과학적 소견을 통해 3-acetyl-2,5-dimethylthiophene은 유전적 정보를 담은 세포인 DNA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유전자 독성물질이어서 섭취시 인류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힘. 그러나 실제 이 물질을 음식을 통해 섭취한 소비자가 위험해 처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언급
 - 3-acetyl-2,5-dimethylthiophene은 음식에 탄 견과류 향을 주는 물질로, 소수의 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유럽연합 지역에서 연간 사용되는 양은 2.3kg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
-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해당 물질은 유럽연합에 의해 승인된 향미료 리스트에서 제외되며, 2013년 7월 초부터 시행되었음.
 - 대EU 수출기업들은 해당 물질을 제외하고 제품을 생산, 수출해야 함.

◆ EU내 검역 불합격 사례(2013. 10)⁶⁾

- EU의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을 통해 2013년 10월 중 검역에서 문제가 된 일부 사례는 다음 표와 같음.
 - 검역에서 문제가 된 한국 사례는 2013년 1월 한 건의 사례가 있음.

5)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6)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EU내 검역 불합격 사례 ■

일/월	검역국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01/10	그리스	터키	냉동조개에서 Escherichia coli(>18000 MPN/100g)검출	반송조치
07/10	그리스	터키	조개에서 다량의 Escherichia coli (1130:2230:3230:5230 MPN/100g)검출	반송조치
11/10	스웨덴	페루	냉동 관자 불법 수입시도	반송조치
17/10	이탈리아	예멘	냉동 갑오징어에서 cadmium (3.55 mg/kg-ppm)검출	수입비승인
02/10	스페인	페루	파네토네에서 비승인 식물첨가물 E 927a-azo dicarbonamide 검출	수입비승인
31/10	크로아티아	러시아	buckwheat porridge에서 ochratoxin A (13.5 ug/kg-ppb) 검출	당국보고조치
01/10	이탈리아	인도	차에서 triazophos (0.11 mg/kg-ppm) 검출	공식적 역류
02/10	폴란드	중국	화이트 차에서 비승인 물질 isocarbophos (0.03 mg/kg-ppm)검출	공식적 역류
02/10	프랑스	중국	녹차에서 acetamiprid (0.32 mg/kg-ppm), imidacloprid (0.1 mg/kg-ppm) 및 fipronil (0.019 mg/kg-ppm)검출	세관보류
02/10	독일	중국	홍차에서 esfenvalerate (0.171 mg/kg-ppm) 및 imidacloprid (0.176 mg/kg-ppm)검출	폐기처분
18/10	영국	미국	냉동 가재의 잘못된 온도 조절 (-2℃)	당국보고조치
01/10	체코	인도	건강보조식품에서 비승인 물질 검출 (Areca catechu: Mucuna pruriens: Sida cordifolia)	수입비승인
03/10	핀란드	인도	유기농 건강보조식품에서 Bacillus cereus enterotoxigenic (8200 CFU/g)검출	세관보류
04/10	프랑스	베트남	냉동 황새치에서 mercury (1.792 mg/kg-ppm)검출	반송조치
15/10	프랑스	베트남	냉동 참치에서 histamin(>250 mg/kg-ppm) 검출	당국보고조치
17/10	스페인	모로코	냉장 silver scabbardfish (Lepidopus caudatus)의 기생충 아니사 키스 감염	반송조치
21/10	에스토니아	미국	냉동 알라스카산 폴락의 잘못된 온도조절 1(-10.3(---)-7.6℃)	반송조치
24/10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unsuitable organoleptic characteristics of deepwater cape hake (Merluccius paradoxus)남아프리카 공화국	폐기처분
17/10	이탈리아	인도	구아 검에서 pentachlorophenol (0.035 mg/kg-ppm)검출	당국보고조치
18/10	그리스	파키스탄	망고맛 커스타드 파우더에서 다량의 색소 E 110-Sunset Yellow FCF (9mg/kg-ppm)검출	공식적 역류
01/10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건조크림 빈에서 propoxur (0.12 mg/kg-ppm)검출	세관보류
01/10	스페인	모로코	매운 맛 그린 올리브에서 chlorpyrifos-ethyl (0.408 mg/kg-ppm) 검출	반송조치
02/10	프랑스	터키	건조무화과에서 aflatoxins (B1=11.5ug/kg-ppm) 검출	폐기처분
02/10	네덜란드	중국	브로컬리에서 carbendazim (2.3 mg/kg-ppm) 및 flusilazole (0.68 mg/kg-ppm) 검출	수입비승인
03/10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건조콩에서 fenitrothion (0.190 mg/kg-ppm) 검출	수입비승인
04/10	핀란드	중국	절임무에서 비승인색소 colour E 102-tartrazine 검출	세관보류
04/10	아일랜드	이집트	오렌지에서 imazalil (7.98 mg/kg-ppm) 검출	반송조치

EU내 한국 검역 불합격 사례

일/월	검역국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03/01	폴란드	한국	명태(Alaska pollock) 의 거짓 검역증명서	폐기처분

최근 수입제도 변경 사항

◆ 동물사료 멜라민 한도 수정(2013. 2)⁷⁾

- EU는 캔에 든 동물사료에서의 멜라민 한도를 설정한 지침 2002/32를 수정하는 집행위 규정 107/2013을 공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3년 2월 26일부터 적용되었음.
- 현재 지침 2002/32의 부록 I에 설정되어 있는 멜라민의 한도는 개괄적으로 액체 내용량 12%에 2.5ppm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규정 107/2013은 이를 '판매된 캔에 든 사료에는 2.5ppm 이상의 멜라민이 포함될 수 없다'고 구체화하였음.

◆ 유기농제품 수입관련 법령 업데이트(2013. 3)⁸⁾

- EU 집행위는 제3국으로부터의 유기농제품 수입에 관한 이사회규정 834/2007의 시행법령인 규정 1235/2008을 업데이트하는 집행위 시행규정 125/2013을 공표하였음.
- 시행규정 125/2013은 특정 법제정 기관과 당국간의 정보교환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관련 제품을 검사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며, 가공하지 않은 식물제품, 농산물, 해초류, 식용 가공농산물, 사료용 가공농산물 등의 제품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수입절차를 컨트롤하는 통제기구(OKO-GARANTIE GMBH)의 권한을 확대하였음.

7)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8)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정 수정(2012. 12)⁹⁾

- EU 집행위는 2012년 12월말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 1333/2008을 수정하여 특정 식품첨가물들의 사용을 허가하는 다음의 규정들을 공포함.
 - 집행위 규정 1147/2012는 밀랍(E 901), 카나우바(carnauba)왁스(E 903), 셸락(shellac)(E 904), 마이크로크리스탈린(microcrystalline) 왁스(E 905) 등의 식품첨가물을 과일가공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연장하는 내용임.
 - 집행위 규정 1148/2012는 이산화황—아황산염(E 220-228), 프로판-1,2-디올 알지네이트(diol alginate) (E 405) 등을 특정 알코올음료(알코올 15% 이하의 증류주나 비알코올음료 등을 알코올음료와 혼합한 것 포함)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함.
 - 집행위 규정 1149/2012는 로즈마리 추출물(E 392)을 라비올리등과 같은 속을 채운 파스타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함.
 - 집행위 규정 1166/2012는 지금까지 와인을 베이스로 한 음료에만 사용이 허가되어 왔던 디메틸 디카보네이트(dimethyl dicarbonate)(E242)를, 알코올 15% 이하의 증류주나 비알코올음료 등을 알코올음료와 혼합한 것들을 포함한, 다른 모든 알코올음료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함.

◆ 식품 활성물질 최대 잔류허용기준 수정(2013. 1)¹⁰⁾

- EU 집행위는 동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서의 약물학적 활성 물질의 최대 잔류허용기준과 분류를 설정한 규정 37/2010을 수정하는 다음의 규정들을 공포함.
 - 펜벤다졸(Fenbendazole); 집행위 시행규정 1161/2012는 2013년 2월 6일부터 포유동물용 종합 구충제로 많이 사용되는 펜벤다졸을 허용대상 활성 물질로 허가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최대 잔류허용기준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살리실산나트륨(Sodium salicylate); 집행위 시행규정(1991/2012)은 칠면조 고기에서의 살리실산나트륨 최대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함.
 - 폭심(Phoxim); 집행위 시행규정 1186/2012는 2013년 2월 13일부터 살충제 폭심을 허용대상 활성물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음.

9)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10)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2013년 농식품 수출동향과 2014년 전망

• 보고서 기획 및 작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국제금융팀, 다자통상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발행일 : 2013. 1. 27

발행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37-78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02) 6300-1114 <http://www.aT.or.kr>

자료문의 : aT 농수산물식품기업지원센터 식품수출정보팀

02) 6300-1393~4

- 「aT포커스」는 농식품수출과 관련한 이슈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정리한 자료입니다.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식품수출지원정보사이트 www.kati.net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하실 수 있으나 무단전재,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